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반기 체납지방세 5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부안군 총 체납액은 이달 현재 2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도 4억 9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체납액 규모를 대폭 낮추는 목표로 체납자 전체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비대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추진단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해 11억 6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장애인 자립·사회 참여 확대 복지정책 추진

고창군이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올해 10대 분야 37개 사업 130여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견 없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관내 모두 30개 사업장 270여명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 장애인들의 소모임 등도 지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더 큰 미래로 도약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 등 메가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고창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3조 원 상당의 메가프로젝트가 운곡을 드러냈다.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감성을 살리고, 청정한 자연환경·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특화시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유기상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보고회를 거치며 초대형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찾고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확보대상사업은 89건 3839억원, 2023년 확보대상사업은 39건 2조9737억원 등 총 128건 3조357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 중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315억원)'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7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 이후 한국 갯벌



고창군은 지난 19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와 생태보전의 중심지를 위해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과 고창·부안에 상용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 급증,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을대교', '서해안철도건설'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국형 그린뉴딜 대응사업으로 '녹색도시경관 조성 지중화사업(120억원)'도 제시됐고, 고창군 핵심사업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수도 전략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로 예산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메가프로젝트는 한 단계 도약하는 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며 "발표된 대단위 핵심프로젝트가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창안대회 발굴 공동체 단계별 지원사업 공모

정읍시, 3월 5일까지 줄기 단계·사후관리단계 2개 분야... 30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정읍시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시민창안대회 줄기·사후관리단계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 단계로 진행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즉, 단계별 공동체 육성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줄기 단계와 사후관리단계 등 2개 분야로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읍시청 공동체과에 제출하면 된다.

줄기 단계사업의 신청 자격은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를 수료한 공동체이고, 사후관리단계사업은 줄기 단계



사업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공동체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서류 및 현장 면접 심사를 통해 공동체를 선정, 공동체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 장

차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시민창안대회는 그동안 뿌리 단계 224개, 줄기 단계 65개, 열매 단계 39개를 육성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100세 까지 건강하게

'체력인증센터' 과학적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 등 호응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개관 후 지금까지 총 97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했으며, 연말에는 '정향누리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체력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체력증진 교실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시는 체력측정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전문단체인 (사)정읍스포츠클럽에 인증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과 온라인 운동 상담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각급 기관·단체를 위해 센터가 현지 출장을 통해 찾아가는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겨울철 활동 부족과 면역력 약화로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과 겨울철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체력인증센터가 정읍시민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 100세 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체력인증센터는 내장상동 샘골보건지소 3층에 소재하고 있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539-0601~4)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의장,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챌린지 동참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챌린지에 동참했다.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으나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릴레이 챌린지는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지역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문찬기 의장은 김경자 김계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문찬기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위기시대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으로 지역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해 의료격차를 좁히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해야 한다"며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찬기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신용근 순창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